

김아영의 환상 특급

“충분히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 <스페이스 오디세이>로 유명한 SF 소설가 아서 C. 클라크의 말이다. 김아영은 클라크가 예언한 미래적 환상세계의 유능한 설계자다. 개인전 <다공성 계곡>이 열리는 일민미술관 1층은 미래의 어느 우주여행사의 홍보 쇼룸 같다. 입구에선 ‘오서닉 매직 솔루션’이라고 적힌 상품 안내 전단을 진열하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플랫폼 A에서 B로, 웅장한 여정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죠! 국경에 멋진 달이 있어요.” 블랙홀처럼 어두운 실내를 관객들을 빨아들인다. 벽면엔 자사가 자신 있게 소개하는 행성의 풍경을 담은 듯한 사진이 걸려 있다. 그 공간을 빛으로 가르는 건 ‘다공성 계곡, 이동식 구멍들’이라 명명한 충전연색 영상 작품이다.

사이버 시스템의 오류와 미디어에 중독된 사회를 미술의 언어로 풍자한 이 영상은 넷플릭스 드라마 <블랙 미라>만큼이나 내용적으로 흥미진진하다. 영상에 사용한 완성도 높은 그래픽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보듯 생생하고, 아바타 캐릭터를 통해 가상 세계로 이동하는 게임 같기도 하다. 이주 상담을 받는 영상의 주인공은 페트라 제네트릭스. 움직이는 큐브 형태의 지하 광물이다. 그 혹은 그녀, 아니면 그것과 마주 앉은 뚱뚱한 백인 남자 상담원은 자격 요건과 이주 과정 등에 대해 기계적인 설명을 이어간다. 영상 중간에 삽입된 광고 클립 속 노란 원피스 차림의 모델은 무표정한 상담원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쇼호스트 특유의 과장된 말투로 어서 빨리 이 멋진 서비스를 선택하라고 재촉하는 그녀는 지나치게 생기가 넘친다. 전시장을 찾은 젊은 관객들은 화면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영상 작품을 다룬 여느 전시와 사뭇 다른 풍경이다.

김아영의 작품이 현대미술을 낫설어하는 일반 대중에게도 설득력을 갖는 건 매혹적인 내러티브 구조와 상업 영역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작가의 감각적인 연출 덕분일 것이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졸업 직후 MTV 프로모션 영상 등 인터랙티브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한 경험이 있다. “나름 하이테크한 일을 했죠. 자본주의의 죄참병으로(웃음)” 영국에서 사진과 순수 미술을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개인 작업을 시작한 김아영은 해외에서 더 주목받는 작가다. 오쿠이 엔위저가 총감독을 맡은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에 참여하면서 세계 미술계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2015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고 2016년 팔레 드 도쿄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제갤러리 등의 단체전을 통해 가끔 소식을 전해왔지만 한국에서 여는 개인전은 실로 오랜만이다.

<다공성 계곡>은 2017 멜버른 페스티벌의 커미션을 받아 지난해 10월 호주에서 먼저 소개했다. “프랑스에 2년 정도 거주하면서 제가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주와 난민 문제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호주 역시 이주민 정책이 뜨거운 이슈였고요. 우의 정권이 10년간 난민 거부 정책을 펼치면서 주변의 작은 섬 두 곳에 수용소를 짓고 배를 타고 온 난민들을 거기에 수용했는데, 인권 문제가 심각했다고 해요.” 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돌산 역시 호주를 배경으로 한다. 거기엔 식민 주체가 거대한 대자연을 볼 때 느끼는 낭만주의적 매혹과 압도적인 풍광에 대한 경외감, 공포, 체념 등의 모순적인 감정과 독특한 정서가 녹아 있다. “<행잉 록에서의 소풍>이라는 1970년대 공포 영화가 있어요. 여자기숙학교의 학생들이 행잉 록으로 소풍을 갔다가 실종된 사건을 다룬 문헌적인 영화죠. 멜버른 근처에 실제 배경이 된 장소가 있어서 일부러 찾아가봤는데,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형 자체가 기이하더군요.”

영상에 사용된 3D 레이어 그래픽은 호주의 지질 데이터를 영상으로 변환한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16년 선보인 <사기 지질학>에서도 김아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층을 시물레이션하는 방법을 작품에 적용한 바 있다. “초음파를 탐지하듯 소리를 이용하더군요. 일정한 간격으로 폭파 장치를 설치한 후 폭파시키면 그 사운드의 잔향이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만나 반사된대요. 그걸 컴퓨터가 3D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리가 이미지화되



WRITER 오미녀(오리탈링) & 디디 / PHOTOGRAPHER 민정익

는 과정 자체가 흥미로웠어요. 전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땅속, 스위스 치즈처럼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고 광섬유 케이블도 묻혀 있어요. 그 사이로 석유와 미네랄 광물이 흐르고 데이터가 이동하죠.” 동시대 난민 문제가 다양한 이주의 양상과 함께 지하 케이블을 통해 움직이는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 문제도 ‘다공성 계곡, 이동식 구멍들’의 중요한 화두다.

“이 작품엔 세 가지 층위의 다공성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데이터 시스템의 구멍인데, 아무리 발전한 종류의 데이터 저장 매체라도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조금씩 지워진다고 해요. 그걸 ‘비트 로트(Bit Rot, 비트 썩음)’라고 부르죠. 언제 데이터가 사라질지 모르니, 아마존이나 구글, 오라클 같은 곳에선 수많은 데이터를 새로운 플랫폼으로 옮기는 마이그레이션 과정이 항상 벌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다공성은 내러티브 구조예요. 개연성이 떨어지는 영화에 대해 비평가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플롯 홀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전 구멍이 뚫린 내러티브를 일종의 가능성으로 봤어요. 어차피 예술이 시도하는 게 논리 정연한 내러티브가 아니라면 거기에 빈 구멍들을 만들어놓고 관객들이 자율적으로 채워 넣을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지질학적 다공성이 있다. 땅 아래 커져서 쌓인 퇴적층은 자연이 기록한 지구의 역사서다. 근대 역사를 미시적 관점에서 다뤄온 김아영은 베니스 비엔날레 초청작이기도 한 ‘제페트, 그 공중정원의 고래기름을 드립니다. 헬’ 시리즈부터 지난 몇 년간 땅속의 검은 기름, 석유 자원에 집중해 왔다. 불에서 석탄, 석유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의 변천사는 곧 인류의 역사였다. 그는 한국의 산업 역군으로서 중동에 파견되었던 아버지 세대의 목소리와 쿠웨이트 진주잡이 다이버들의 이야기, 걸프 전쟁 등을 사운드, 영상, 설치 작업으로 엮어 한국의 근대현사와 환경문제를 비롯한 자본주의 시대의 글로벌 이슈로 풀어냈다. 파리 국립 오페라단 소속 안무가와의 협업한 ‘이 배가 우리를 지켜주리라’에서는 보이스 퍼포머들의 노래와 음악을 통해 국립 오페라극장 팔레 가르니에를 역청(원유 가공물)이 발린 성경 속 노아의 방주로 재현하기도 했다. 검은 인공 호수 위에 지어진 이 황금빛 극장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실제 배경으로 유명하다.

“어느 날 석유를 어떻게 시추하는지 한번 들여다봤어요. 암반 사이에 주삿바늘 같은 시추공을 꽂아 석유를 쭉 빨아들인 후, 똑같은 양의 물을 채워 넣어요. 지반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건데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마치 피를 뽑고 식염수를 넣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 아래 그런 물웅덩이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 빈 공간을 상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공성의 개념에 관심이 생겼고, 여기까지 이어졌어요.” <다공성 계곡>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제페트’ 시리즈의 시적인 제목이 탄생한 배경도 흥미롭다. 김아영은 프로그래머와 함께 ‘기계 장치의 신’이라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자료 조사를 위해 수집해온 텍스트의 어절을 그 프로그램에 집어 넣고 미서에 돌리듯 특정 로직을 적용했을 때 갈려 나온 문장 중 하나가 ‘제페트, 그 공중정원의 고래기름을 드립니다. 헬’이다. 중세 초, 신과의 현존할 일을 꿈꾸던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Sufi) 시인들이 신의 언어로 써 내려간 아름다운 시와 컴퓨터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모호한 단어의 나열이 이토록 유사한 건 우연의 일치일까?

“다공성 계곡, 이동식 구멍들의 영상 스크립트를 쓰는 7개월 동안 김아영은 SF 장르에 빠져 있었다. “테크노바빌론이라는 인디 게임이 있어요. 노스텔지어 그래픽의 사이버펑크물인데 매우 아름다워서 한동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죠. 옥타비아 버틀러의 소설도 그렇고요.”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역사와 판타지, 과학, 우주론 등을 테크노에 접목한 아프로퓨처리즘(Afrofuturism)을 보여주는 흑인 여성 SF 소설가 옥타비아 버틀러는 블랙 페미니즘을 음악적 키워드로 내세운 팝 스타 자넷 모네의 앨범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아프로퓨처리즘은 가능성 있는 예술적 조류라고 생각해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같은 불평등의 문제를 리얼리즘이나 액티비즘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초월적 존재, 우주인, 과거에서 온 자로 설정하며 사변 속으로 끌어넣죠. 기괴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통해 오히려 저 멀리에서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저 역시 방법론적으로



사변 소설의 형식을 차용했어요. 앞으로도 당분간 그런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싶고요.”

SF 소설의 거장 아서 C. 클라크 원작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인류에게 문명의 지혜를 가르쳐준 검은 돌기둥의 정체를 밝히고자 노아의 방주처럼 거대한 우주선 디스커버리호를 타고 목성으로 향한다. 에너지의 변천 그리고 기술의 진보와 함께 진화해온 인류의 미래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사람이 도구화되고, 도구가 인격화되는 물질 문명의 정점에서 우주로 떠난 영화는 나체의 철학을 담은 그 유명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시작된다. 김아영의 시선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선 땅 아래, 하늘보다 더 깊고 검은 지하 우주로 향한다. 거기엔 텅 빈 구멍들의 계곡을 헤매는 목소리가 있다. 전설 속 초인의 메아리가 울린다. “나는 어디서 나와 대등한 자를 찾을 수 있는가. 알만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멸망하고 말리라.”

